敎 하나로서 "이놈, 그런 法이 어디있어?" 하면 그것으로 꼼짝 못하고 다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못 합니다. 佛敎, 儒敎, 基督敎도 여러 敎가 다 들어와서 좋다고 하면 좋지만, 그만큼 多樣性이 있게되고, 하나로 一貫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판인지 지금 매우 갈팡질팡 하는 것 같습니다. 自由, 自由가 좋긴 한데, 西洋의 自由는 基督敎가 있어서 제 마음대로 하다가도 "하나님이 容恕하지 않아요!"하는 防波堤가 있는데 우린 그런 것이 없이 그저 混亂되어 있읍니다. "내가 自由로 내 能力에 依해 내가 하는데 누가 敢히 뭐라고 해!" 이것이 自由가 되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放縱과 通하지 되었읍니다.

이런 것을 모두 克服하고서 참말로 價値를 알아서 내가 願하는 것, 願하되 참말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願할 수 있는 것, 이게 眞情한 意味의 價値인 줄 압니다. 그게 무엇 일까? 옛날 같으면 英雄이 必要하겠죠, 英雄이란 戰爭터에 나가서 싸울잘 할줄 아는 사람일 것이오, 오늘날 그런 英雄은 싸움形態가 달라졌으니까 要求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 보다는 百姓속에서, 百姓과 더불어 같이 손 붙잡고 나아갈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 억지로 表現한다면 普通 말하듯이 차라리 聖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사람이 要求되는 時代가 아닐까 합니다. 價値가 그런 데에서 具現된 하나의 標本을 求하고 있는 時代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現代的인 것에 있어서의 그런 方向을 確固히 보여준 사람이 대개 어느나라에나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例로써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各者가 그런 面을 向해서, 可能하면 어떻게하여 찾아낼 수 있나 하는 創意的인 努力을 하는 수 밖엔 없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人間關係에 있어서의 儒敎價値觀의 樣態

金 璟 東

방금 朴선생님의 말씀중에 儒敎의 問題에 關해서 이미 相當한 言及이 되어 있어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말씀을 약간의 事實로 조금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儒敎의 영향에 關해서는 누구도 疑心치 않을 程度로 李朝以來 儒敎가 우리사회에 끼친 影響이라 하는 것은 深刻한 것이었읍니다. 더구나 그것이 社會發展의 見地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廢端을 많이 남겼다는 點에서 大部分의 사람들이 意見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게다가 外來文化의 強打로 傳統文化가 深刻한 破裂狀態에 놓여 一種의 價値觀의 수라장化 했다는 소리가 高調하는 한편 어떤 새로운 價値體系의 確立이 切

實히 要請되는 現實에서 요즘 韓國社會의 價値觀硏究에 關心이 集中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本人은 特히 傳統的인 價値觀의 하나로서 가장 強力한 影響力을 미쳤다고 認定되는 儒敎 價値觀의 樣態를 약간이나마 檢討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침 하바드 燕京學會의 硏究費를 補助받을 機會가 있어서 우선 韓國社會의 儒敎價値觀의 硏究를 爲한 基礎作業에 着手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基礎作業이라는 데에 強調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方法을 使用하였는가? 먼저 이제 아동들의 社會와 家庭에서 形式的인 敎材로 使用되던 小學이라는 册을 分析했읍니다. 儒敎의 人間關係規範인 五倫을 中心한 價値觀念을 이 册에 立脚해서 整理해 보려고 하였읍니다.

이것은 크게 두가지 目的에서 行해졌는데, 이것과 오늘날 또는 過渡期的인 日政時의 道義敎育의 敎材를 比較함으로써 대체적인 傾向을 把握하려는 데 첫째 目的이 있었고, 둘째는 여기서 다음 施行할 調査의, 다시 말하면, 態度尺度 構成을 爲한 基本的인 價値의 範疇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읍니다.

여기서 使用한 分析은 소위 內容分析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初步的인 主題의 量的 記述的 分析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두번 째 方法으로 態度尺度의 構成 이었읍니다. 위의 小學의 分類에 立脚해서 人間關係의 五規範 即 父子君臣, 上下, 長幼, 또는 老少, 男女및 朋友關係와 그에 關聯된 것으로 人格修, 養, 禮儀, 敎育 및 儒敎의 實踐道德 一般等에 對한 態度를 測定하는 態度尺度를 構成하였읍니다.

態度의 測定이란 價値觀의 言語的 表現이라는 反應을 一定한 尺度에 依하여 分析하려는 方法이라는 假定에서 이 方法을 採擇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節次는 먼저 小學의 內容을 中心으로 質問書用 問項을 作成해서 慶北에 있는 安東郡 退溪先生의 鄕里에 老人層 指導者들과 非形式的인 面接을 에서 通하여 그 妥當性을 大略 檢討하였읍니다. 다음 서울大學校文理大 社會學科와 女子大學 社會學科의 學生 一部에 다가 一次 事前 檢査를 實施하여 87個 問項中 46個問項을 一定한 基準에 立脚하여 選定했읍니다. 다음으로 京畿高等學校의 2학년 學生 58名, 液明女高 2학년 60名, 서울文理大와 서울女大의 2학년 各 47名, 64名, 서울女大生 學父母 39名, 京畿道龍仁郡慕賢面능원里라고 하는 데에 成人男女 50名 都合 318名을 對象으로해서 二次 檢査를 實施하였읍니다.

이 때에 標本選擇에 있어서는 그냥 有目的的 층화표집으로서 확율표집이라고 볼 수는 없읍니다. 尺度의 妥當度는 問題分析에 있어서 소위 一貫性分析法이라고 하는 Lickert式 尺度分析을 利用했읍니다. 여기서 discriminatory power라고 하는 辨別力을 產出해서 一定한 水準 即 D.P.가 1.00以上인 問項에 對해서만 골라서 最終尺度用 質問書를 28個 項目으로 構成된 質問書를 構成했읍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二次檢査의 結果

이기 때문에 이것은 最終的인 結果가 아니고 말하자면 一種의 調査中間報告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標本이 標本抽出이 확률표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內容이 어느 程度 一偏性이 있느냐 하는 데에 對해서도 自負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結果를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말씀드리려는 結果는 一部는 想白鄭石 華甲記念論叢에 그 教科書 分析의 資料가 실려 있고, 社會學會會誌에 앞으로 이 態度尺度 構成에 對한 좀 더한 方法的인 問題가 있을 예정이니까 여기서는 그 解說을 省略하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教科書 比較를 해 볼 것 같으면 傳統的인 韓國社會의 教科書로는 小學을, 日政下의 道義教材로는 大正 1,2,3 년도의 修身書를, 오늘날의 것으로는 1963·4 年度의 道德책을 各各 分析 比較했읍니다. 여기서는 가장 簡單한 比較資料 두가지만 紹介해서 대략적인 傾向만 밝히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의 數表에 表1을 보실 것 같으면 人間關係를 家族內外의 關係로 크게 區分할 때, 小學에서는 家族內의 關係가 54.7%로서 過半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修身이나 道德책에서는 家族外 關係가 過半를 훨씬 넘고 있읍니다.

勿論 여기서 國家와 社會라고 하는 範疇를 人間關係規範에 包含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읍니다마는 이 두 範疇는 그 自體가 人間關係의 具體的인 表現은 아닐지 몰라도 역시 人間關係의 結體로서 把握하려고 할 때에 重要한 差示으로 看做하고 그래서 이제 細部的으로 보면 小學에서는 家族內의 關係中에 父子關係가 으뜸이고, 君臣, 夫婦, 長幼, 兄弟의 順位로 되어 있으며, 修身, 道德책에서는 國家 社會가 各各 一, 二位를 차지하고, 家族內 關係에서는 父子關係가, 家族外 關係에서는 朋友關係가 各各 首位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儒教 價値指向의 重要한 範疇에 비추어서 比較한 것을 그 順序만을 가지고 잠간 살펴 보겠읍니다. 여기에 가치지향의 範疇라고 하는 것은 제가 小學을 分析하기 爲해서 任意로 그냥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그 妥當性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批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表2를 볼것 같으면 小學에서는 權威主義와 禮儀 및 人格修養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重視되고 人道主義, 道德的指向, 教學主義라고 하는 소위 教育의 重視 및 物質的 安逸의 輕視등이 그 順序로 되어 있읍니다. 修身書에서 볼것 같으면 人道主義, 人格修養, 國家, 社會가 가장 많이 言及되고 또 다음으로 教學, 道義, 權威主義, 禮儀, 生活改善, 物質輕視의 思想의 順序로 오고 있읍니다. 道德 책에서는 國家, 人道主義, 人格修養社會가 먼저 強調되고 이어서 道義, 權威, 生活改善, 物質輕視, 禮儀, 教育등이 따라오고 있읍니다. 여기서 注意할 것은 비록 같은 用語로 表現되었다고 해도 그 內容의 뉘앙스는 時代마다 다르다는 事實입니다. 가령 人道主義라고 한다면 一般的으로 慈愛 仁慈등

이 그 基礎가 되는 人情이겠지만 儒敎에서는 주로 어질인字 仁의 思想이, 修身에서는 人情이, 道德에서는 거기에다 協同이나 親切이라는 發展된 形態의 人間關係마저 포함되고 있어서 若干 그 內容을 달리하고 있으며 物質的 安逸의 輕視라는 것도 가령 小學의 境遇에는 無私公正의 義에다가 거기에 反對하는 私利私慾의 不義를 追加하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심지어는 安貧樂道에 까지 包含하는 소위 君子의 思想에 까지 이르게됩니다다는, 修身이나 道德책에서는 單純히 檢約節制의 뜻을 강하게 나타내 있고 若干의 不義한 手段을 排斥한다는 것이 內包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여하간 이런 傾向을, 지금까지의 傾向을 대충 解說한다고 하면, 우선 儒敎的價値指向에 있어서는 權威主義的인 人間關係의 秩序와 形式的 儀禮的인 側面이 重要視되었던 것이 日帝下에서는 一端 個人의 精神的인 姿勢인 人道主義的인 態度와 個人의 人格的인 修養面이 약간의 儒敎的인 것과 西歐的인 것의 混成品으로 나타나 있으며, 한편 國家 社會로 觀心의 焦點이 移行해 가는 過程에 있읍니다. 道德책으로 보면 우선 國家가 앞서고 다음에 人道主義的인 同情과 協同 그리고 보다 民主的인 形態인 人格修養과 社會福祉에 向한 觀心이 強調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리고 한가지 附言할 것은 오늘날 道德책은 反共思想을 鼓就하는 데에 相當한 분량을 消耗하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이것만 빼 놓으면 그 表現이나 外見上으로는 약간 다를지 몰라도 內容의 傾向으로 볼 때는 修身書와 別差異가 없다는 것도 한가지 제가 發見한 重要한 事實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럼 이제 態度尺度에 나타난 儒敎價値觀의 內容을 간단히 說明해 드리겠읍니다. 態度尺度의 構成의 方法論的인 解說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省略하고, 여기서 數表에 나타나는 點數가 무어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텐데, 이것은 各 問項의 集團別 또는 全體의 平均이며 點數範圍는 最下 1點에서 5點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儒敎的인 態度가 強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2次檢査의 實施結果 尺度의 信賴度는 平均 84로서 標準보다는 약간 낮은 便이지마는 大端히 低級한 條件은 아니라고 自慰했읍니다. 實際 點數 獲得範圍는 1.21에서 부터 4.98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것은 平均點數입니다. 먼저 여기서 態度領域 또는 價値領域으로 제가 規定한 人間關係의 次元과 그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를 包含한 아홉가지의 次元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表 3에 나타나 있읍니다. Ⅰ, Ⅱ, Ⅲ, Ⅳ하고 Roma 文字로 Number를 매겨 놓은 것이 바로 그 것입니다.

全體的으로 볼때, 長幼 老少 關係에 가장 높은 點數가 주어지고 있읍니다. 4.15입니다. 다음이 敎育面, 그리고 君臣 上下 關係, 人格修養, 禮儀, 父子關係, 儒敎一般 朋友關係 및 끝으로 男女關係의 順序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

을 좀더 細密히 檢討하기 爲해서 男女別, 世代別, 都市 農村別로 다루어 보겠읍니다. 여러분들의 表4를 보실 것 같으면 男女, 靑年, 老壯 이것은 世代別입니다. 그 다음 男子靑年, 女子靑年, 男子老壯, 女子老壯이건 世代別 男女別입니다. 다음에 都市農村, 都市男子, 都市女子, 農村男子, 農村女子 이렇게 되이 있읍니다. 表는 여러분들이 參酌하시기 바라고 저는 解說만 若干 붙이기로 하겠읍니다. 平均的으로 女子가 男子보다 약간 높은 점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 중에서도 人格修養面이 가장 點數差異가 크고, 거꾸로 말해서 男子가 女子보다 높은 點數를 보이는 것은 두가지가 있는데 이들 점수차이는 모두가 다른 거꾸로의 境遇보다는 點數差異가 훨씬 크다고 하는 事實을 留意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女子가 男子보다 대체로 儒敎的인 傾向이 큰데, 이것을 우리가 普通 保守的이라고 할 수 있다면 父子關係와 朋友關係에서는 女子가 오히려 덜 保守的이라는 말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世代別로 보면 오히려 父子關係나 朋友關係는 靑年層과 老年層의 差異가 훨씬 큰 것을 보아 世代間에 男女別 差異가 있을 것이 豫想되었읍니다. 그래서 一率的으로 老壯層은 靑年層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 點을 좀 더 밝히기 爲해서 世代別 世代內의 男女別 比較를 해 보기로 했읍니다. 우선 一般的으로 世代의 差異없이 男子보다 女子가 점수가 높지마는 훨씬 差異가 줄어 들고 있읍니다. 다음 父子關係는 全體 男女로 볼때 女子가 덜 保守的이었는데, 世代別로 보니까 靑年層은 오히려 女子가 높은 점수를 보이고 老壯層에서 그것이 뒤집어 지고 있읍니다. 즉 老壯層에서는 父子關係에 對한 女子들의 생각이 덜 保守的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혹시——이것은 제 추측입니다——시집살이라고 하는 소위 어려움을 겪은 婦女子들이 나타낼 수 있는 父母에 對한 어떤 態度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朋友關係에서는 反對로 젊은 世代에서 女子가 덜 保守的인 結果가 나왔읍니다. 아마 女子들은 男子들보다 朋友關係에 對한 關心이 적을지도 모르기 때문이겠읍니다. 한 가지 더 指摘할 것은 젊은 女性層에서는 男女關係에 對하여 男子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點입니다. 一般的으로 男女關係가 儒敎에 있어서는 상당히 權威主義的이고 行爲上의 差別를 두는데 요즈음 男女關係의 觀念과 行爲樣式에 젖은 젊은 女性들로서는 여기에 反對하려는 意思가 높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靑年層女性 점수가 낮은 면으로는 敎育面인데, 아무래도 敎育의 重要性은 男子가 더 느끼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差異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老壯層에서 한가지 女性점수가 낮은 例外의 경우는 人格修養의 면입니다. 生活에 女性들이 행여 지나친 道學者같은 男便을 꺼리는 까닭이라고나 할지 모르겠읍니다. 그 外에는 一般的인 傾向 即 男子보다 女子가 靑年層보다 老年層이 점수가 높고 있읍니다. 그런데 年齡 또는 世代로 보아서 젊은 世代가 낮은

점수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常識的으로 짐작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女子가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하는 理由는 약간 궁금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推測해서 女性은 아직도 男性에 비해서 多分히 保守的인 탓인지도 모르겠읍니다. 또 靑年層과 老年層의 比較에서 一般的인 順序와 눈에 띄게 뒤바뀌고 있읍니다. 즉 全體로 볼때 그 順序가 되 있던 것이 중간에 가다 世代나 혹은 靑年層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靑年層에서는 君臣 上下關係보다 人格修養이 앞서고 있으며, 老壯層에서는 人格修養보다 禮儀면이 앞서고 있어서 좋은 對照를 보인다고 하겠읍니다. 즉 젊은 世代는 形式的인 關係나 儀式보다 人格修養이라는 內面的인 側面을 더 重要視하는 데 反해서 老壯層은 禮儀를 人格修養보다 더 強調한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靑年層을 除外하고 즉 年齡을 統制한 다음에 成人 老壯層에 局限시켜 都市 農村別 比較를 해 보겠읍니다. 여기서 成人이라면 30代以上 70代까지를 包含하고 있읍니다. 人格修養面을 除外하고는 一般的으로 農村이 都市보다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아마도 농촌사람은 人格修養이란 面에서 그리 뚜렷한 方向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面에 關心이 더 큰지도 모를 일입니다. 都市 農村할 것 없이 남자보다 女子의 점수가 높은데 都市에서는 朋友關係에 있어 女子가 낮고, 농촌에서는 禮儀와 人格修養에서 女子가 낮습니다. 朋友關係에서는 靑年男女의 점수가 같은 것이 퍽 흥미로운 結果이고, 農村婦女子의 禮儀에 對한 點數는 都市女性에 비해 월등 높지마는 農村 男子보다는 낮은 결로 미루어 보아 이것은 농촌 男女들의 儒敎的인 觀念이 禮儀面에서 크게 強하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한가지 反證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읍니다.

다음에 價値指向別로는 어떤 傾向이 있는지 살펴 보겠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表 5를 參酌하시기 바랍니다. 全體로 보아서 價値指向別 分布는 비록 問項數는 얼마되지 않지만, 소위 교육의 궁시라고 하는 것이 으뜸이며, 다음이 人道主義이고 나머지는 相互間에 別 差異가 없고, 順序로 볼 때에 物質的 安逸의 輕視, 道德的指向, 修養된 人格, 禮儀 至上主義, 權威主義의 차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儒敎의 價値指向도 오늘 날에 있어서는 敎學의 重視라든가 人道主義的 關係가 오히려 強調되고 小學에서 나타난 것과는 거의 反對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만한 점입니다. 가령 小學의 價値指向의 順序를 다시 한번 여기서 볼 것 같으면, 權威主義, 禮儀主義, 人格修養, 人道主義, 道德的指向, 敎學 및 物質的 安逸의 輕視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터 다시 男女, 世代, 都市·農村別로 檢討하겠읍니다. 우선 여러 분들의 表 5의 男女를 보실 것 같으면 0.01이라고 한 謹少한 差異를 除外하고 보면, 一般的으로 女子가 높거나 같은데 人格修養에서는 女子가 훨씬 낮습니다. 이것은 前述한 態度領域에 있어서 世代別로는 人格修養에 있어 女子가 낮

다고 하는 이야기를 反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世代別로는 物質 輕視의 思想을 除外하면 老世代가 젊은 世代보다 훨씬 높고 있읍니다. 老壯層은 젊은 世代보다 더 現實的이라 그런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또는 老壯層에서는 禮儀至上主義的 傾向이 全體의 二位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態度領域에 있어서도 形式面이 重要視된다고 할 때와 마찬가지로 禮儀가 더 強調되고 있다고 보아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各 世代內의 男女를 다시 比較해 보면 우선 젊은 層에서는 人格修養面과 權威主義面에서 女性이 男性보다 點數가 낮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이미 指摘한 特徵이거니와 權威主義에서 낮아진 主要 理由는 男女關係에 對한 女子들의 反權威主義的 傾向이 여기서도 反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老壯層에서는 物質輕視와 人道主義에서 女性이 적은 點數를 모으고 있읍니다. 이 點 역시 成年 女性들이 보다 現實的인 傾向에로 쏠린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都市 農村의 成人層만 比較해보면 여기서는 都市 農村을 不問하고 物質的 安逸의 輕視, 行動上의 尊敬이 強調되고 있읍니다. 朋友關係 및 君臣上下關係는 주로 道德的인 關係로 規定되고, 人格的面에서는 物質輕視의 思想이 加味되며, 敎育面에서는 道義敎育의 重視가 包含되고 있읍니다.

끝으로 收入과 宗敎에 對한 比較를 간단히 해보았읍니다. 몇가지 社會 經濟的 要因에 따라서 儒敎的 態度를 比較해 보고자 했지만 資料의 不充分으로 收入과 宗敎에 의한 比較만 해 보겠읍니다. 收入은 都市人에 局限시켰고, 宗敎는 全 集團을 對象으로 하였읍니다. 여러분 들의 表6에는 收入別 比較가 돼 있고, 表7에는 宗敎別 比較가 돼 있읍니다. 各 集團으로 收入別 態度 점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 이 表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볼 때, 뚜렷한 傾向을 잡기는 어렵고 한가지 推測을 해 본 것은 月收 萬원 미만을 經濟的 下層으로 보고, 二萬五千원 以上을 上으로 보고, 萬원에서 二萬五千원 사이를 中流에 있다고 볼 때, 점수가 中流에서 가장 높고, 上流가 가장 낮은 편이며 下層이 中間으로 되어 있읍니다. 勿論 이 分類는 相當히 獨斷的이지마는 만일 이대로 分類할 수 있는 客觀的인 根據가 있다면 中流層이 가장 儒敎的 價値觀이 強한 편이고 다음으로 下流이고, 上流에서 가장 덜 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읍니다. 이것은 가령 中流階級의 職業이나 其他 家族背景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더 뚜렷해 지겠지만, 대체로 이 階層에서 가장 엄격한 敎育方式을 쓰고 있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가운데 암암리에 儒敎的인 傳統을 상당히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더 硏究해 보아야 할 課題입니다.

다음 宗敎別로는, 儒敎라고 자기들이 claim한 사람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天主敎, 佛敎 그리고는 基督敎 敎新敎와 無宗敎가 오고 있으며 其他 宗敎라

고 하는 것이 末尾에 오고 있읍니다. 결국 儒敎 敎人이라고 하는 사람은 으레이 그렇다고 하고, 基督敎中에도 舊敎인 天主敎가 相當히 高點數인 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일입니다. 佛敎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높은데, 이것은 天主敎가 아직도 相當히 그 保守性을 띈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길 지 알 길이 없읍니다. 다만 기독교 개신교는 相當히 開化에 앞장섰던 宗敎로 알려져 있는 데도 無宗敎人과는 別 差異가 없으나 이것도 앞으로 더 硏究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끝으로 여기서 提示한 資料는 어디까지나 豫備調査의 段階를 벗어나지 못한 것기 때문에 最終的인 것이 못 될 뿐 아니라 그 標本選擇도 前述한 바와 같이 이 確率 표집이 아닌 까닭에 一般性을 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로 몇가지 示唆를 얻었다고 보고 그것을 要約해 볼때 첫째 人間關係面에서 교과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家族關係에서 國家 社會로 關心과 焦點이 擴大되어 간다는 點이요, 둘째는 權威主義的인 데서 平等主義的인 人道主義로 關心의 焦點이 옮아 간다는것입니다.

다음 態度尺度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아직 儒敎的 規範價値가 確固히 適用되는 分野는 특히 長幼 老少關係와 敎育의 重視等이고, 그러나 敎育이란 것이 반드시 儒敎의 思想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一般的으로 敎育을 重視하는 風潮때문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알 길이 없고 단지 態度尺度의 discriminatory power란 辨別力으로 볼 때, 敎育이 가장 낮았읍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一般的으로 點數가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高點數 集團과 低點數 集團과의 差異가 別로 크지 않았다 하는 뜻은 一般的으로 사람이 敎育을 重要視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儒敎的影響이냐는 문제시 되겠읍니다. 따라서 이 項目은 다음에 最終尺度에서는 除外되었읍니다.

그 다음에 態度面에서는 權威主義나 禮儀보다 人道主義나 人格修養에로 그 重點이 옮아가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다음 世代別 都市·農村別로 뚜렷한 差異가 있고, 또 하나의 儒敎 價値觀의 崩壞相을 이것을 通하여 豫測케 하여 줍니다. 男女別로 보면 女子가 男子보다 더 保守的이라는 常識을 뒷 받침 해주고, 收入別로는 中流가 가장 保守的이라는 말이 되며, 宗敎別로는 天主敎와 佛敎가 新敎나 無宗敎에 비해 더 保守的입니다.

지금까지의 硏究는 極히 初步的인 段階에 不過함으로 앞으로 이 方面에 標本과 集中的인 內容을 가지고 길이 있는 硏究가 있어 지기를 希望할 따름입니다.

「東亞日報」와 「每日申報」의 比較

李 萬 甲

價値觀의 硏究라는 問題에서 「東亞日報」와 「每日申報」가 왜 問題視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疑訝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른지도 모르겠읍니다. 이 新